

설 특별기고

홍매화 피는 설을 맞이하며



정찬주 소설가

우리 가족은 매년 설 하루나 이틀 전에 성묘를 먼저 한 뒤 차례를 지내곤 했다. 이제는 으레 서울에 사는 자식들도 미리 와서 9시에 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성묘를 한다. 선산은 보성군과 화순군을 경계 짓는 계당산 산자락에 있다. 거기에는 고조부부터 선친까지의 유적이 양달 여기 저기에 자리하고 있다.

계당산은 나에게 나의 근본과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산이다. 계당산 하공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바람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화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면 보성강으로 흐르다가 섬진강 물에 섞인다. 반대로 보성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면 지석강으로 흐르다가 영산강이 된다. 빗방울이 어떤 바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강이 달라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나 역시 선대와 선친이란 뿌리가 있었으므로 하동 정씨 '복내 문

중' 속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의 성묘길은 수월한 편이다. 내가 사는 산방에서 계당산 산자락에 있는 재 하나만 넘으면 된다. 선산은 의외로 지척에 있다. 어린 시절에는 솔가지지를 꺾어 놓고 절했는데 지금은 나무부터 안 하고 있다. 솔가지지를 꺾는 것이 효도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나는 상석에 술 대신 차를 올린다. 생전의 선친께서 술보다는 차를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 나만의 습관이 있다면 상석에 음악된 할머니들의 성씨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일이다. 증조할머니는 보성 선씨, 큰할머니는 진원 박씨, 할머니는 김해 김씨다. 집안을 이어 온 할머니 성씨라도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후손으로서 도리 같아서다.

성묘를 하고 나면 마음은 더 없이 정갈해진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차례이니 만큼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릴 것만 같다. 예전에는 선달 그믐날을 끼치설이라 부르며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사촌 형제까지 모여 밤새 정담을 나누었는데 요즘은 사라져 가는 풍습이 돼 버렸다.

새해 첫 해가 선(竝)다고 해서 설날이 아니라, 차례를 지낸 뒤에는 웃어썩게 세배하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탄다. 예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친척 어른들께 세

배 인사를 한 뒤 윷놀이 등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탈바꿈하면서 자취를 감추어 버린 듯하다.

세배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큰절을 한다. 이는 어른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 민족만의 인사법이다. 복이란 스스로 짓고 받는 법이다. 새해 인사를 하느라고 일가친척이 많이 모이면 집안이 북작북작 소란스러워진다. 여기서의 소란스러움은 서로가 복을 짓는 '복작복작'(福作福作)이 아닐까 싶다. 차곡차곡이란 말이 차가 창고에 가득 쌓인 모습에서 유래했다니 그럴 만도 하다.

한편, 설을 생각할 때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기억이 하나 있다. 보성군 홈페이지에 홍암 나철 선생의 일대기 '단군의 아들'을 연재하면서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이다. 구정(舊正)과 신정(新正)이란 말을 별 생각 없이 써 왔는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역사 인식의 용어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단군 사상 실천자였던 보성 벌교 출신의 나철 선생은 일제가 권장하는 이른바 신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 풍속이자 얼이 담긴 설을 고수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는 우리 민

족 문화 말살책의 일환으로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1896년 1월 1일부터 민족 고유의 설을 양력 1월 1일에 신정이란 이름으로 지내도록 했는데, 음력설을 쇠지 못하게 1주일 전부터 방앗간 문을 닫게 하는 등 온갖 횡포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나 나철 선생의 홍익 사상을 추종했던 역사학자 신채호, 한글학자 주시경, 개천절 노래 작사가 정인보, 독립군 대장 김좌진 등은 신정을 단호히 배격하고 음력설을 쇠면서 국권 회복과 광복 의지를 더욱 다짐했다.

마당가 흥매 가지에 꽃망울들이 대롱대롱 달려 있다. 나는 훈이 말이나 버린 꽃보다도 꽃망울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꽃의 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꽃의 빛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흥매의 훈은 붉은 빛깔이다.

일찍이 미당 서정주 선생은 "성철 스님을 뵈고 있는데 스님의 모습 뒤로 분홍 빛깔이 섰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성철 스님의 후광 빛깔이었을 텐데 사람마다 다르고, 있거나 없거나 할 것이다. 나는 무슨 빛깔인지 몹시 궁금하다. 설을 전후해서 날이 포근해진다면 내 산방 마당가의 흥매화가 한두 송이 피어날 것도 같다.

은편칼럼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강대석 시인·행정학 박사

옛그제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칠천만의 아리랑'이란 노래를 들었다. 왕년의 인기 가수였던 김부자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이 젖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특히 노랫말이 인상적이었다.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고향이여/ 보고파도 볼 수 없는 내 형제여/ 한 핏줄을 갈라놓고 50년이 웬 말이냐/ 저 하늘도 기가 막혀 통곡하고 있구나/ 이제 그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불러보자/ 아리랑을 불러보자/ 민족의 한, 민족의 꿈/ 통일이여/ 칠천만이 소리친다.'

예전에는 무심코 흘려들었던 이 노래가 이토록 감동을 준 이유는 무엇보다도

평창 올림픽 때문이었을 게다. 지난 9일 평창 올림픽이 마침내 개막되었다. 세계 92개국이 참가하고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루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함으로써 평화 올림픽의 모습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었다.

사실 평창 올림픽은 연말까지만 해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제재 압박 속에서 전문이 가득한 평창 올림픽에 섣뜻 오겠다는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동네 올림픽이 될 것을 우려 했을까.

그러나 일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우리 정부의 집요한 노력 끝에 북한 김정일이 통 큰 화답을 하면서 화답은 일사천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4년 동안 막혔던 육지와 바다, 하늘길이 열리고 개막식에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의 입장이 이루어 졌다. 특히 한반도가 입장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 북한의 김영남, 김영정, 도미스 바흐 IOC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관객들의 기립 박수는 감격 그 자체였다. 그동안 야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몰아붙이고 어떤 야당 인사는 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국제올림픽조직 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또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에 부친을 데려오고 리셉션 만찬장에 앉지도 않고 5분 만에 떠나 노골적으로 재를 뿌렸다. 모두가 웅졸한 처사였다.

지난 2003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대북 사랑의 쌀'을 배에 싣고 인솔단으로 남포(진남포)를 방문하여 쌀이 하역되기를 기다리며 일주일 넘게 남포 시내를 둘러봤다. 당시 인구가 30만 명인 남포시내는 암흑가나 다름없었다. 시내는 점포나 식당 등 상업 시설은 거의 없고 시골 마을처럼 텅텅빈 것이었으며 거리는 한산했다. 주민들은 깡마르고 의복은 남루했으며 가끔 보이는 아파트는 페인팅을 하지 않아 회색 건물들로 너저분했다. 그들은 경제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았다. 김씨 부자의 정권 유지와 세습을 위해 죄 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못살게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씁쓸하고 서글픈 생각이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그동안 많이 변했음을 실감하게 했다. 현송월이 든 고가 핸드백이나 방납 인사들의 옷차림이 그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듯 변화가 감지되었다. 비록 그것이 보여주기식 선전술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술단원들의 실루엣에 비친 햇살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음의 방증으로 보였다.

물질은 때로 정신을 바꾼다. 아무리 주제 사상으로 무장된 그들이라고 하지만 화려한 물질 세계를 체험한 이상 그 단맛을 외면하고 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북한의 선수, 공연단, 응원단, 참관단 등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 그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알게 모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한이 심해도 봄 바람은 얼음을 녹인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교류를 재개하여 활성화하고 그 봄바람이 북녘의 얼음을 녹이길 기대한다. 지난겨울 타올랐던 우리의 촛불처럼!

기 고

참 스승의 길



송준석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제자들의 졸업식이 다가오면 꼭 하는 자기 반성적 행위 중 하나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생이었나'를 스스로 묻는 일입니다. 부끄럽게도 매년 '아니다'라는 답을 반복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교사를 직업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자기 변명이자 참회 활동인지 모릅니다. 전주고 신자인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기에 고백 성사를 두려워하지만 성탄과 부활을 맞이하면서 의무적으로 고백 성사를 통해 두렵지만 하고나서 행동안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죄 많이 지었

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사실 저는 교수라는 용어보다는 선생을, 선생이라는 용어보다는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참 욕심이 많은 겁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거룩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스승 그 자체로도 충분히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참 스승'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교육 자체가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좋은 교육, 나쁜 교육이라고 구분 짓는 어려움들을 범하고 있기에 그것을 따라서 붙인 쓸데없는 사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날의 제 삶의 밑바탕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스승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스승님은 제도적인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비제도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수많은 어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

는 것은 소크라테스처럼 삶과 삶이 다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은 어렵지만 삶의 진정한 결단의 순간에는 저의 머리와 가슴에 영혼의 울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무기로 삼아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상처를 주는 나쁜 갑질을 하는 전제 군주적 선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서고 또는 사랑을 받지 못해 증오로 가득차고 폭력화된 아이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고 스스로 변화 가능성의 믿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는 선생님이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아이를 수단화하지 않고 참사랑으로 목적으로 대하는 스승이 이 세상에 많이 필요함입니다.

저의 반성적 사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과연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했던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함을 즐거워하고, 익으면 속을 내보이는

서류처럼 진실하게 의사 소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의 가능성을 지지해 주었던가? 역사 의식을 깨우치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진정으로 공유하며 일깨웠던가? 소크라테스처럼 때로는 제자들에게 따끔한 '쇠파리'적인 각성을 주었는지? 제 자신이 연구에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제자들에게 꿈과 사랑을 주었는지? 교연에 어긋나지 않고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승과 제자가 인격과 인격의 맞부딪힘으로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저의 꿈을 점검합니다. 매년 낱제 점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저를 성장케 하고 다시 다짐케 하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라도 저와의 만남 동안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분의 아니게 상처를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면 제자들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제자들이 유아 교육 기관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길 기원하며 저의 반성문을 마칩니다.

社 說

바른미래당의 앞길 호남인이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어제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그리고 통합 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과 함께 정당 체제는 5당 체제로 재편됐다. 바른미래당의 초대 공동대표로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 남구읍·4선)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대구 동구읍·4선)가 합의 추대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격인 수입기관 협동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박 부의장과 유 대표의 조합은 양극단 분열 종식, 영호남 화합 등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 마무리 후 당 대표 사퇴' 등 양선 약속대로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민계 김동철 원내대표(광주 광산구갑·4선),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읍·초선)으로 결정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읍·재선)과 김중로 의원(비례대표·초선),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읍·초선)과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재선)은 최고위원을 맡는다. 두 당은 강령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빼기로 합의하고 국민의당이 요구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도 다룬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최대한 이념적인 표현과 용어를 배제한 채 출범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진보·보수를 뺀 불확실한 정체성이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한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눈부신 약진을 함으로써 이후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새롭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구갑·4선),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읍·초선)으로 결정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사필귀정이다

헌정사상 조유의 대통령 탄핵을 물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국민의 자존심에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힌 데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최 씨는 앞서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씨의 공소 사실은 18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은 바탕으로 국정 운영 곳곳에 깊숙이 관여하며 뒤로는 막대한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 오죽하면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겠는가. 그럼에도 최 씨는 조기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 없는 후안무치로 일관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능성이 될 수 있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 사실 가운데 최 씨와 공모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것이 13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벌율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더 이상의 국정농단과 정경 유착의 재발을 막고 국정을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나아가 최 씨의 독일 내 재산 등에 대한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 환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중국은 대형 프로젝트에 신화·설화·소설 등 원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 10월 무인 탐사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창어'(嫦아·嫦娥)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항아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달나라에 사는 선녀다. 불사약인 서왕모의 천도복숭아를 훔쳐 먹고 하늘로 올라가던 중 달에서 쉬다가 천재로부터 벌을 받아 두꺼비로 변신한 비운의 주인공이다. 중국인들은 우주 개발의 꿈을 말할 때 늘 '항아분월'(嫦娥奔月·항아가 달나라로 달아나다)의 전설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인면조도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성공한 사례다. 사람 얼굴을 한 인면조는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새로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존재다. 태평성대를 상징하고 무한 장수를 기원하는

평창 올림픽은 고구려 벽화 속 인면조에 조선 시대 각시탈의 입체감을 더해 상상 속의 새를 현실로 되살림으로써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일본에서 인면조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원형 콘텐츠

올랐고 우리 정부는 정부의 대표 페이스북과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인면조로 바꿨다. 국내·외에서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 '평창 올림픽의 신 스티커(주연을 능가하는 조연)는 인면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면조는 우리나라 원형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원형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내년엔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과연 어떤 원형 콘텐츠로 지구촌 사람들을 사로잡을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지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